

《科學技術》 저변 확대에 힘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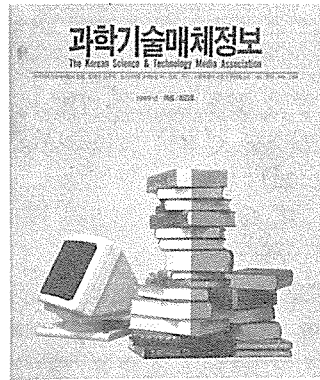
쉽고 재미있는 과학기술도서 펴내야

『科學技術의 大衆化는 신문·방송·TV·잡지·출판등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出版매체는 다른 매체에 비해 비용이 싸게 먹히면서도 파급 효과가 크다는 利點이 있어 과학기술 저변 확대에 주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요』

韓國科學技術媒體協會 金周穆 회장(大光서림대표)은 요즘같이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추세에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기위해서는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연구에 전념하고 국가는 이를 정책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해 주며 신문 잡지 출판등 대중매체들은 이 분야의 정보와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金회장은 우리나라가 2천년대 先進10위권 대열로의 진입이라는 國民的 夢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전문교육 및 연구기관의 창의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인력의 지속적인 저변확대는 물론 우수한 과학기술전문저술인의 개발, 과학기술 매체 전문인력의 육성, 해외 과학기술정보의 신속·적절한 수용과 확산 등이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강조한다.

『과학기술자들만의 힘은 과학기술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모두의 의식속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金회장은 흔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과학기술이며 이러한 견인차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과학기술자라는 인식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金회장은 어느시대고 과학기술은 그 시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없이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기까지 산업경제발전을 뒷받침해온 과학기술자들의 숨은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자화자찬같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活字매체를 통하여 우리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해 온 과학기술매체 종사자들에게도 따뜻한 격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공계통 즉 자연과학도서를 출판하려면 우선 굳은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지요. 과학기술도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수명이 짧을

뿐만 아니라 노력의 댓가만큼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金회장은 제한된 시장과 판매부수, 까다로운 제작과정과 과도한 제작비, 그리고 과학은 날로 발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새로운 도서를 병행해서 단기일내에 개정판과 수정판을 출판해야 하므로 다른 분야에 비해 위험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 출판물의 경우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독자들의 관심분야가 변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구미에 맞추어 도서를 출판한다는 것이 타분야에 비해 고충이 크다고 털어 놓는다.

金회장은 요즘은 해마다 발표되는 연구논문수가 홍수를 이룰 정도로 과학저술활동이 활발한데 비해 불과 20여년전만해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통의 전문서적 보급은 대부분이 외국책의 복사판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독자들의 왕성한 지적요구를 더 이상 복사판이나 번역판으로 충족시켜 줄 수 없으므로 유용하고도 시장성이 있는 양질의 출판물을 발굴·보급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판문화협회 산하 과학기술분야의 도서출판사들이 한데 뭉쳐 科學技術立國에의 尖兵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金회장은 협회는 과학기술인력의 지속적인 저변확대와 우수한 과학기술 전문저술인·편집요원의 육성개발과 과학기술매체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1월 설립된 단체라고 소개한다.

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과학기술매체 종사자의 자질향상 △과학기술인구의 저변

확대 △전문과학기술 저술인의 활성화 △의 국민 과학기술 저작권의 효율적이용 △과학기술도서목록 간행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협회는 창립당시 30여개사에 불과하던 회원이 70여개사로 늘어났고 과학기술매체의 전문지로서 「과학기술매체정보」라는 기관지를 발간할 정도로 재정적인 면에서도 안정됐다고 생각합니다』 金회장은 과학기술도서 출판사들의 위치가 우리나라 출판계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확고해진 만큼 기초과학에서부터 첨단과학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지식을 일깨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어렸을때 파브르곤충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이 다음에 커서 과학자가 되어야 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쉽고 재미있는 내용이 담긴 과학도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해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과학기술도서 출판사는 이러한 철학을 갖고 출판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金회장은 예술이나 체육등 타분야처럼 과학기술 분야도 어렸을때부터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어린 이뿐만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읽힐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도서의 출판과 함께 매스컴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붐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저변확대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현대사회는 情報化시대입니다. 컴퓨터나 과학을 모르고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등 어느 분야에서도 적응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이렇듯 과학적인 소양이 바로 현대인의 기본교양으로 간주되는 만큼 과학의 대중화운동이 보다 폭넓게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權光仁記>